

Khidi Issue Paper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보건산업정책: 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

보건산업기획단
권태혁, 윤지영, 정명진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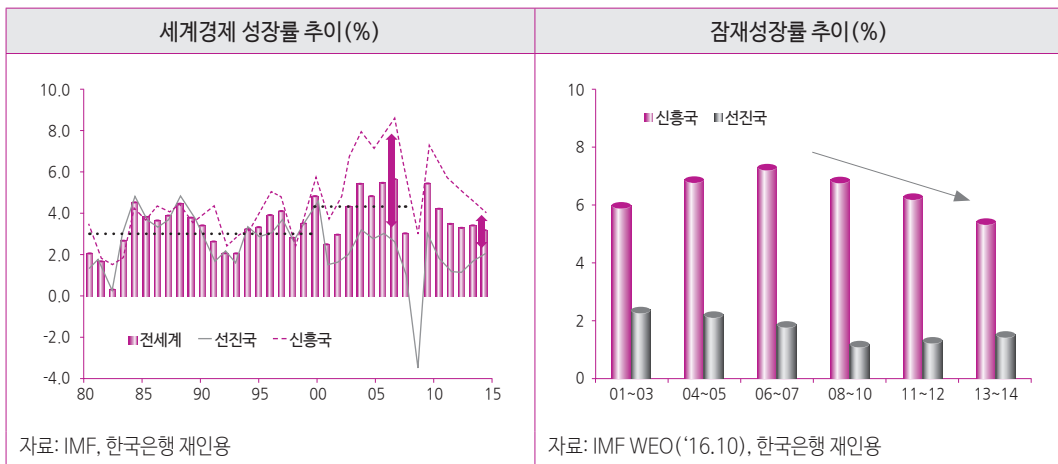
- I. 서론
- II. 저성장 시대의 산업 정책
- III.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주요국의 정책
- IV.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
- V. 결론 및 시사점



I 서론

■ 4차 산업혁명의 의미

-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구조적인 저성장 시대로 진입
 - 2012년 2.3%의 경제성장률로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2015년 3.3%까지 상승하였으나 2015년 2.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여 하락 반전
 - 2016년 중 2.7%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17년 2.9% 수준으로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¹⁾
 - 잠재성장률²⁾ 또한 2001~2005년 4.7%에서 2010~2015년 3.2%로 1.5%p 하락하였으며 2016~2020년 2.7%로 지속적인 하락이 예상됨³⁾
-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속 제조업 고용악화, 청년 및 노년층 고용부진 지속 등 고용시장의 악화 지속 예상
 - 최근 신규취업자가 늘고 고용률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2016년 2/4분기 감소로 전환
 - 2017년 국내 경제의 소폭개선에도 불구하고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됨에 따라 신규취업자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세계 경제 또한 글로벌 3고(高) 및 3저(低)* 현상으로 상당기간 어려운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큼⁴⁾
 - *글로벌 3고: 불확실성의만연, 과잉공급, 사상 최대의 부채 / 글로벌 3저: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 글로벌 차원의 일자리 정체 및 가계 소득 불균형, 기업 투자 위축 등이 나타나고 이에 대한 정책 대응도 한계에 직면
 - 특히 중국 등 신흥국이 주도했던 성장이 둔화되면서 세계 경제가 저성장 국면으로 수렴하고 고령화 등의 심화로 잠재성장률 또한 하락세



[그림 1] 세계경제의 저성장 추이

1) 한국은행 경제전망 보고서(2016.7)
 2) 한 국가의 노동, 자본, 기술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생산요소를 사용하여 물가상승(Inflation)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이룰 수 있는 경제성장률 전망치
 3) 현대경제연구원 2016.1
 4) 한국은행 국제경제리뷰 ('16.1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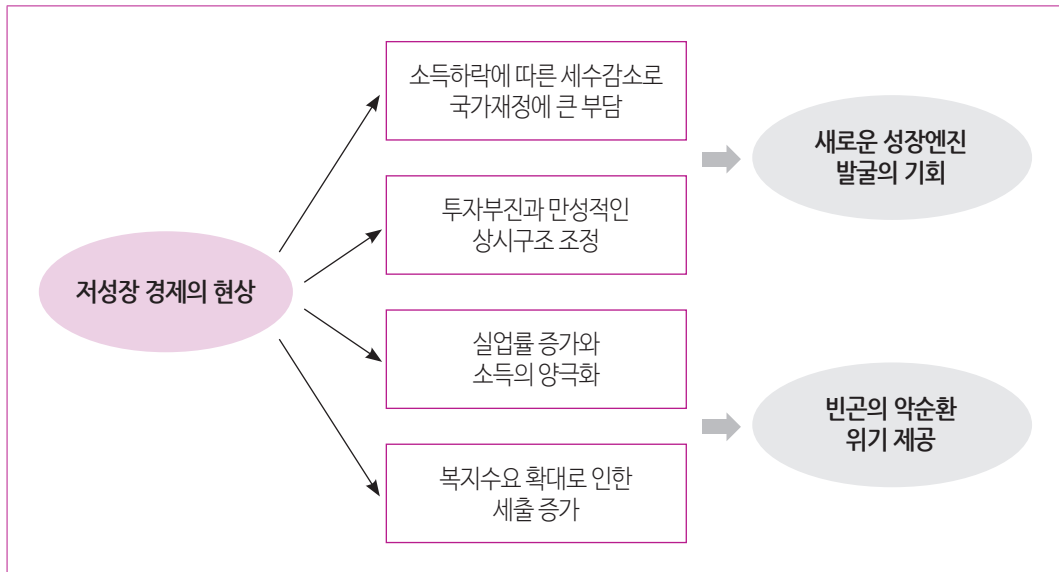
- 따라서 이러한 대외여건과 우리경제 내부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혁신정책과 산업구조의 변화가 필요함
 - 기존 주력산업에 대한 확장적 지원정책으로는 고령화와 소득양극화, 신흥국 추격 등으로 침체에 빠진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저성장 시대에 맞는 지속가능한 성장, 양질의 일자리를 동반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이 필요함
- 이에 정부는 경제적, 사회적 혁신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보건산업을 주목하고 육성을 위한 종합발전 전략을 제시하였음
 - 보건산업은 단기적으로 기업과 병원의 해외 시장 진출 활성화를 통해 수출을 진작하여 경제성장을 견인할 잠재력을 지님
 - 또한 장기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증대, R&D 성과의 생산성 향상 및 국민 건강증진 등 중장기 잠재성장률 개선을 위한 생산요소의 질적 수준을 제고
 - 뿐만 아니라 향후 실질적인 국민의료비의 절감은 가계의 가치분 소득 증대를 통해 내수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음
 - 이번 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은 각 산업 주체의 상호연계와 경제-사회 목표를 함께 고려하는 통합형 혁신정책으로 저성장 시대의 효과적인 전략(STEPI, 2013)으로 판단됨
- 본 보고서는 앞서 언급한 저성장 시대를 타개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방안으로서 발전전략의 세부내용이 지니는 정책적 시사점을 파악하고자 함
 - 저성장 시대의 산업정책과 주요국의 대응을 살펴보고 저성장 시대의 해법으로서 이번 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을 분석함
 - 이를 통해 저성장에 대응하는 혁신정책의 관점에서 이번 종합발전전략이 가지는 의미를 통해 향후 추진과정에서의 시사점을 얻고자 함

II

저성장시대의 산업정책

■ 저성장의 의미와 주요 현상

- 특정 경제가 지난 5~10년 사이에 평균적으로 얼마나 성장했는가와 최근의 실제치를 비교하여 결정하는 상대적 개념
 -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GDP 성장률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잠재성장률, 실업률 등의 지표를 추가로 인용
 - * 한국 경제는 대체로 5~6%를 기준으로 저성장을 구분하나 선진국은 3%를 기준(허찬국, 2007)
- 우리나라는 잠재성장률의 지속적 하락, 수출둔화, 내수부진이 지속되고 경기부양을 위한 금융·재정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저성장' 상태로 판단(한국경제연구원, 2015 등)
 - 이러한 저성장 경제에서는 만성적인 상시 구조조정과 실업률, 시장 탄력의 둔화, 소득의 양극화 등이 고착화



출처: 저성장에 대응하는 주요국의 혁신정책 변화 분석(STEPI, 2013)

[그림 2] 저성장 경제의 현황과 위기 및 기회

■ 저성장의 주요 원인

1) 구조적 요인

- 경제발전애 따른 자연스러운 잠재성장률 둔화: OECD 국가들 대부분 1인당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박원암 외, 2012)
- 대다수의 선진국은 ‘뉴 노멀’이라는 새로운 저성장기에 진입(박태영 2011, 성지은/박인용, 2013)
- 저출산·고령화: 생산가능인구비중이 하락할수록 노동공급이 감소해 경제 성장률과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 감소

2) 경제 순환적 요인

- 경제 주기상의 경제침체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며 저성장 지속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소비가 위축되어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감소로 이어짐
- 중국의 성장둔화, 유럽의 재정위기 장기화, 미국경제 저성장 등으로 인한 수출침체와 관련국가의 동반 경제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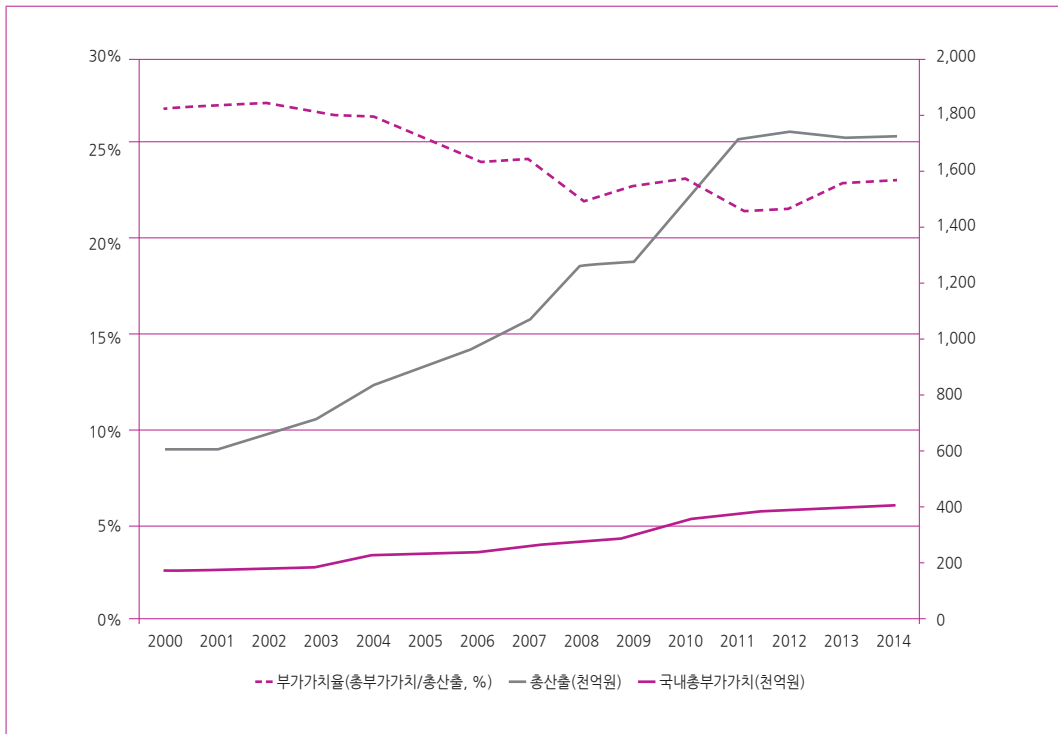
3) 산업적 요인

- 잠재성장률을 좌우하는 요소인 총요소생산성(TFP, Total Factor Productivity)⁵⁾ 증가율의 하락
- 2000년 중반이후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이 그 이전의 57% 수준으로 급락(한국생산성본부, 2012)
- 성숙기를 지난 주력산업의 기술혁신 속도 둔화,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증가, 한계기업 증가 및 노동생산성 증가세 둔화로 인한 하락(한국은행, 2016)
* '01 ~ '05년 잠재성장률에 대한 총요소생산성 기여도 2.0% → '15~'18년 0.8%로 하락(한국은행, 2016)

5) 노동과 자본 등 총요소 투입 단위당 산출량의 변화율로 노동과 자본, 천연자원 등의 투입량이 전 기간에 비해 2배가 될 경우 산출량이 2배 이상으로 증가하면, 산출량과 투입량의 잔차만큼이 총요소생산성의 증가분이 됨(한국생산성본부, 1991)

○ 신산업 개발의 실패로 인한 새로운 주축산업의 부족

- 철강, 조선, 석유화학,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성장정체로 선진국과의 격차와 중국의 추격이 동시에 지속 (장하준, 2016.7)
- 2000년 이후 제조업 부가가치율이 감소 추세에 있으며 2010년 이후 총산출의 정체로 부가가치율이 소폭 상승하였으나 선진국에 미치지 못함*
- * 2011년 WIOD(World Input-Output Data, 국제산업연관표 자료) 기준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율은 20.1%인데 반해 주요국 부가가치율은 미국 및 영국 각각 34.6%, 일본 30.5%, 독일 30.1%이며 인도와 중국 또한 각각 20.7%와 20.6%로 우리나라에 비해 높음
- 이는 일부 품목 편중 수출상품 구조, 주요소재 및 장비의 해외 의존 등 산업과 기업의 미래를 위한 혁신투자 부족 등이 주요 원인(KIET, 2016)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그림 3] 국내 제조업의 부가가치율 하락

산업적 요인에 대한 해결책과 향후 예상되는 구조적 요인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산업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산업 정책

◎ 지속가능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 산업혁신 방안 필요

- 경제성장을 최우선 목표로 요소투입을 확대하는 고성장기의 정책과 달리 자원의 효율적인 재분배와 산업 환경 개선을 통한 혁신 추진

[표 1] 고성장과 저성장 시대의 정책목표 및 수단차이

구분	고성장 시대	저성장 시대
정책 목표	경제 성장	지속가능한 성장, 일자리 창출, 양극화 등 사회문제 해결
정책 초점	경제성장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	기술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강조 (성장, 복지, 일자리 등)
주요 전략	요소 투입형 혁신전략: 부처별/산업분야별 개별 정책 추진, 백화점식 정책 나열	산업과 기업 현실에 맞고, 파급력이 큰 정책 수단 필요, 정책 간 연계·확산 고려
정책 수단	R&D 투자 확대, 주력산업 지원, 산업을 위한 R&D 추진	규제 및 법제도 환경개선, 혁신수요 촉진, 통합형 혁신정책 추진, 산업 혁신생태계

출처: STEPI 2013, 재구성

◎ 종합적인 정책(Full policy tool kit)을 통한 산업지원을 위한 체계적 접근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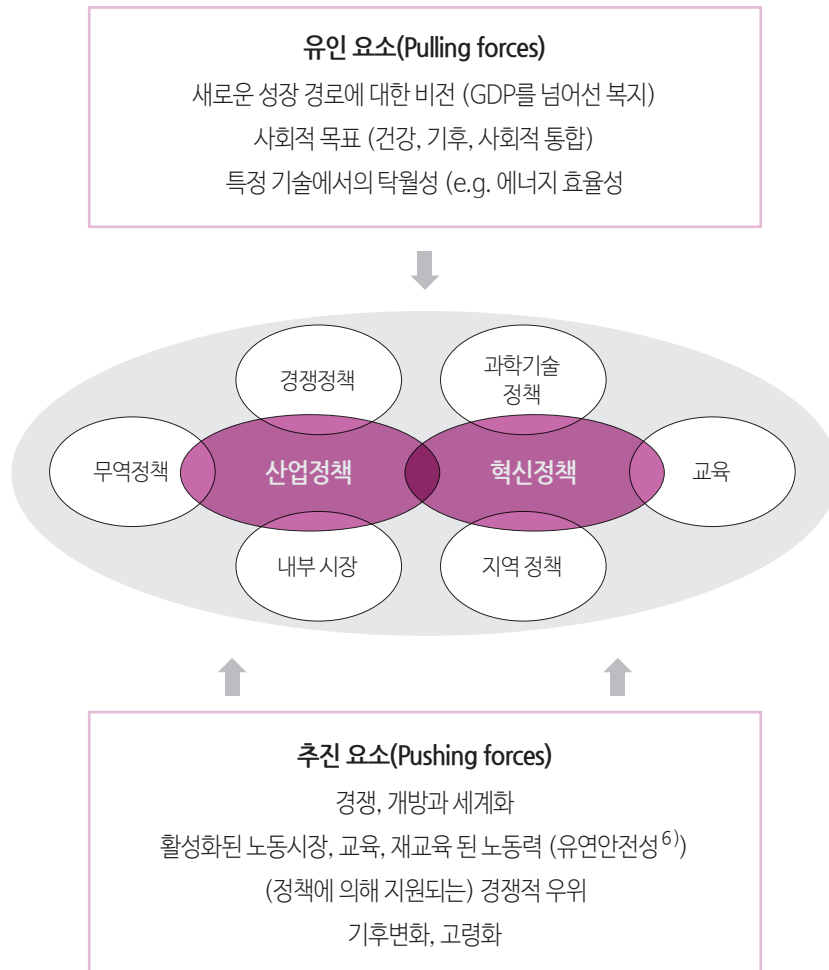
- 산업의 발전과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저해 규제에 대한 포괄적 개선(From red tape to trade barriers)
- R&D 효율화 및 산업 인프라 투자를 통한 정부의 산업지원 조력자 역할 강화
- 민간 영역에 대한 적절한 개입을 통해 자발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혁신을 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

◎ 경제적 목표 추구와 타 정책의 사회적, 환경적 목표와 상충되지 않는 미래지향적 산업 정책으로 다음의 요소들을 포함

- 재정적 유인(incentive)와 승자 선택(Winner picking)에 기반 하지 않고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업 환경을 조성하여 타 산업으로의 성과 확산(Spillover) 유도(Rodrik, 2011)
- 기업이 기존의 낡은 기술에 지속 투자하는 고착(Lock-in) 상황*을 방지하는 등 기존의 경로 의존적인 결정을 방지(Aghion et al, 2011)

* 한 산업에서 특정기술이 채택되어 다른 기술이 그 기술을 기반으로 발전되어 나가는 현상으로 완전히 창의적인 기술이 도입되고 발전되는 것을 제약하게 되는 상황

- 독자 생존이 불가능한 자국기업의 보호가 아니라 경쟁 우호적인 환경 조성을 통해 산업의 새로운 비교우위 창출
- 사회적 필요성과 산업 및 사회 전체의 장기적인 혜택을 고려하여 국가가 미래에 지향하는 모습을 비전으로 한 정책(Aiginger-Bärenthaler-Siever-Vogel, 2013)



출처: Industrial Policy for sustainable growth path, Karl Aiginger(WIFO), 2014 일부 재가공

[그림 4]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체계적 산업 정책

III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주요국의 정책

■ 유럽

- 정체된 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민간부문 R&D 투자 여건을 개선하여 GDP대비 R&D투자 비중 확대 노력(Europe 2020)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고용창출을 목표로 EU차원의 공동대응을 통해 중장기 성장 전략과 정책을 마련
 - 미래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큰 핵심 분야의 일자리를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기술교육 강화 등을 통해 고용을 활성화 하는 고용패키지 전략 추진

6) 유연안전성: 노동자에게 직업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 ◎ 재정 건전화를 위한 노력 및 혁신을 위한 거버넌스 구조 합리화
 - R&D 자금지원시스템 간소화를 통한 예산집행 효율화, 규제조정, 인력지원
 - 일부국가는 단일 부처에 산업혁신과 관련된 과학기술, 통상 등을 집중하여 권한을 강화하고 일관된 정책집행을 도모(e.g. 영국의 기업혁신기술부(BIS))
 - 국가 R&D 성과의 사업화 및 실증사업 등 연구 생산성 제고 중심의 혁신정책을 도입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육성하여 혁신주체들 간의 협력과 시너지 강화를 추진
- ◎ 유망분야 경쟁우위 선점 등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신산업영역 창출 및 산업 경쟁력 향상 정책 추진
 - 독일 연방교육연구부(BMBF)의 첨단기술전략 2020을 통한 5대수요 분야(기후, 에너지, 보건, 안전, 정보통신 등) 미래시장 개척에 초점(STEPI, 2013)
 - 혁신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신규사업 진입에 대한 보조금, 기술이전 활성화 장려, 혁신기술 및 상품 수출 활성화 정책 시행*
 - * Europe 2020의 'Industrial policy for Globalization era', 프랑스의 '연구방향 및 계획법' 등
- ◎ Europe 2020의 포용적 성장 강조와 같이 의료, 교육 등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부문의 집중 육성을 위한 투자 강화

■ 미국

- ◎ 정부 예산 감축 기조에 따른 예산 효율화로 경제성장, 고용창출, 보건, 청정에너지 등에 R&D 예산을 집중
- ◎ 1, 2차 미국혁신전략(2009/2011)에 이은 新 미국혁신전략(2015) 발표
 - 바이오, ICT, 에너지 등 핵심 정책영역의 주무기관에 대한 R&D예산 증가
 - R&D투자 및 장기 경제성장, 9대 전략기회 분야* 집중투자 등을 통해 국가적 당면과제 해결과 정부혁신 역량 제고에 집중
 - * 첨단제조업, 정밀의학, 두뇌 이니셔티브, 첨단 자동차, 스마트시티,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기술, 교육용 기술, 우주, 고성능 컴퓨팅
- ◎ 혁신성과 제고, 혁신활동 촉진 및 혁신역량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 시행
 - 연방정부 R&D 투자 성과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로 고용효과, 경제성장, 보건·환경적 영향력 등을 측정
 -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는 시장 친화적 혁신정책 추진, 기업가정신을 넘어 창업 미국(Startup America) 이니셔티브 제시
 -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STTR(Small Business Technology Transfer) 프로그램을 통한 기업의 전주기 R&D 혁신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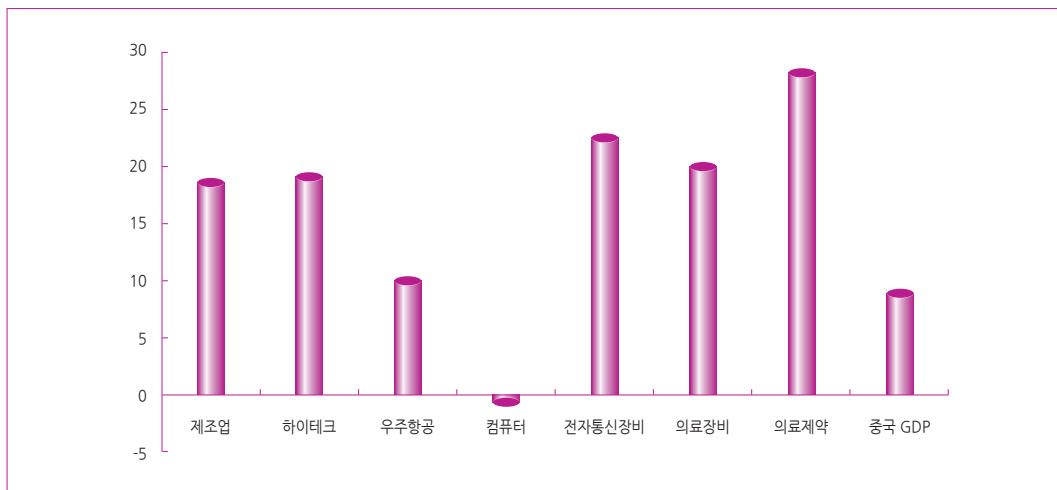
■ 일본

- ◎ 오랜 불황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으로 인한 사회적, 구조적 문제를 과학기술과 경제사회의 통합적 관점의 혁신정책을 통해 극복하고자 노력
 - GDP 대비 정부 R&D투자 비중을 1%까지 높이고, 제4기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통해 저성장기조 탈피, 고령화 문제 대응 등의 해결책을 제시
- ◎ 신성장 동력의 집중 육성 및 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한 지원전략 수립
 - 산업혁신기구(INCJ) 설립(2009)을 통해 첨단기술 사업화, 창업 활성화 및 유망산업에 대한 투자 등을 지원

- ◎ 동시에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와 의료, 환경 등 삶의 질과 관련되는 분야의 집중 육성으로 혁신을 통해 혜택의 사회적 파급효과를 기대

■ 중국

- ◎ 고성장 국면의 종료에 따라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위한 혁신을 강조
 - 정부의 재정정책과 과잉산업 구조조정 등을 통한 공급개혁, 기업 보조금 등 부양정책을 통해 신흥 산업의 확대를 도모(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2016)
 - 지속적인 투자 확대로 2015년 GDP대비 R&D지출이 2%를 넘어 섰으며, 하이테크 산업 연구개발 투자 또한 연평균 증가율이 20%에 육박함



출처: CEIC,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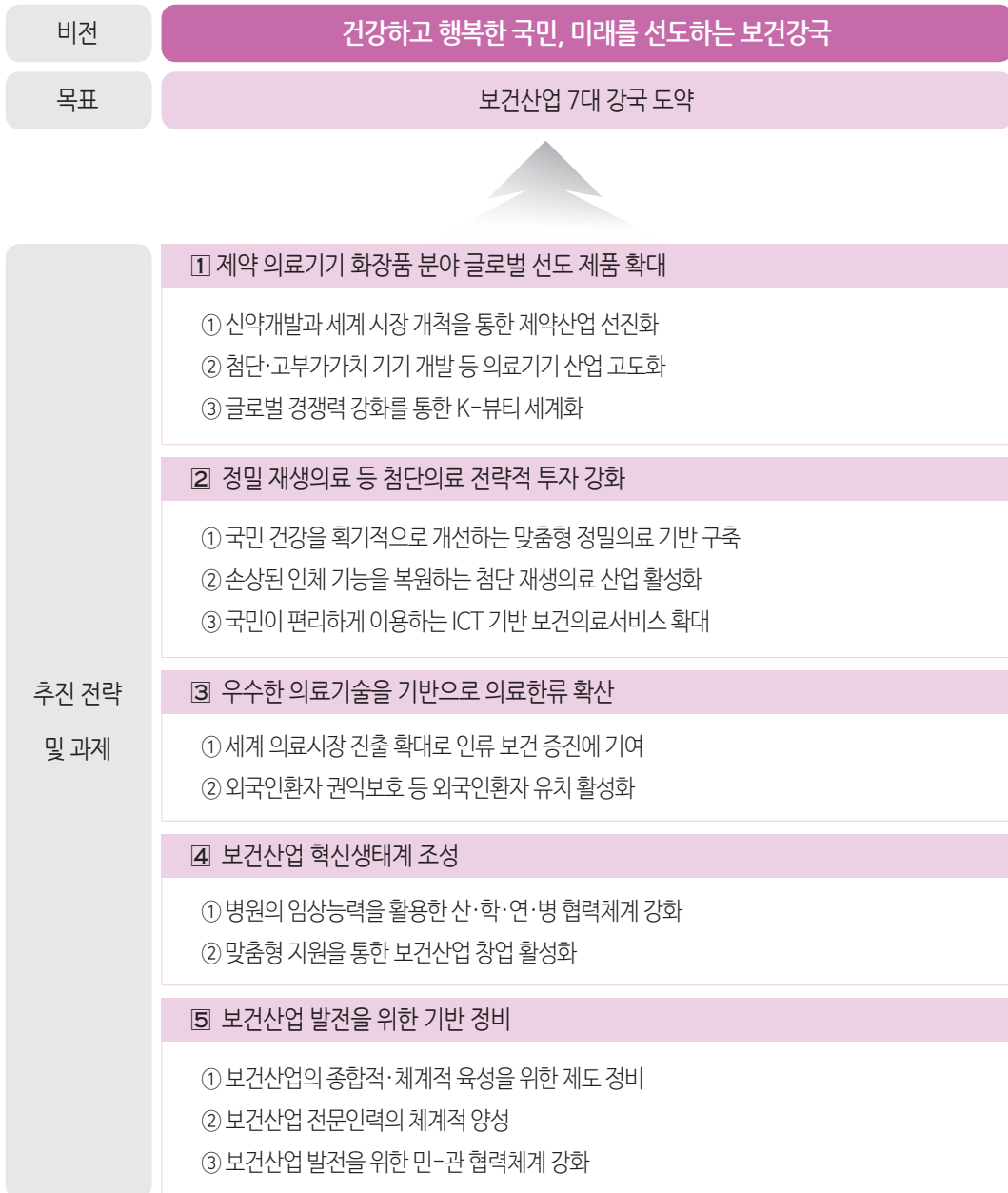
[그림 5] 중국의 최근 3년간 연평균 R&D 증가율

- ◎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정책’을 통해 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7대 산업을 지정하여 육성 추진(2010년)
 - 차세대 정보기술, 바이오, 첨단장비, 신에너지 등 높은 연구개발 및 생산기술 수준을 요하는 품목을 선정하여 자체개발 및 해외 기술 수입 추진
- ◎ ‘중요 과학기술 기초시설 건설(2012-2030)’, ‘광대역 중국전략(2012-2020)’ 등 중장기 발전계획을 통해 세부 산업별 인프라 및 기술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IV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

■ 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의 개요

- 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은 2016년 연두업무보고 시 제시한 ‘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의료서비스를 포함한 보건산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5대 추진 전략과 13개 추진 과제를 제시



출처: 바이오헬스 6대 강국 진입을 위한 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16. 9)

[그림 6] 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의 추진체계

- 총 7개 분과의 민간 협동 실무 TF를 운영하여 세부산업별 핵심과제를 도출하고 검토를 통해 최종 117개 세부과제를 선정, 추진계획 발표
 - 총괄,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재생의료, 정밀의료, 해외의료 분과별로 산업계, 학계, 병원 및 관련 부처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
 - 정책토론회를 통한 각계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쟁점조정을 통한 보건산업 전체를 조망하는 종합적 육성방안을 수립

■ 저성장시대 산업정책 관점의 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 분석

- 앞서 학술 문헌 및 각국 정부의 정책문서 검토를 통해 제시한 저성장 시대의 산업정책을 바탕으로 종합발전전략을 분석
 - 저성장 극복을 위한 정책 목표의 지향점과 추진 수단으로서 주요전략의 연계, 세부과제들을 통해 포함해야 하는 핵심요소로 구분하여 분석
 - 특히 핵심요소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체계적인 산업정책의 추진요소와 유인요소⁷⁾를 중심으로 종합발전전략의 과제들을 검토

① 정책 목표

- 단순한 경제성장을 넘어 사회적 목표로 국민건강 증진, 일자리 창출 등 미래지향적 정책 목표 설정
 - 2025년 건강수명 76세, 2020년 일자리수 94만명 달성 등 사회적 목표 제시
 - 기술혁신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와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보건 강국 비전 설정

② 주요 전략

- 세부산업별 산업 환경과 기업 현실에 맞는 5대 전략과 13대 과제를 통해 산업 정책간의 연계와 확산을 고려
 - 제약, 화장품 산업 등 글로벌 기업으로의 진입 가능성이 큰 분야에 대한 선도전략*과 의료기기 등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산업의 고도화 전략**을 세분화
 - *첨단 신약, 화장품 개발 및 국제 협력 강화, 기업 투자 유인 등
 - ** 유망분야 기술 중점 지원을 통한 기술수준 제고, 선진 유통·관리제도 선진화 등
 - 문화 콘텐츠(한류) - 화장품 산업 - 의료 브랜드화 - 관광산업 연계, 의료수출 - 디지털헬스 인프라 구축 - IT기업 동반진출 등 타 산업 육성과의 선순환 고리 제안
- R&D, 규제 개선, 인프라 등 종합적 관점에서의 체계적인 지원과 산업 생태계 조성
 -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시장참여를 제한하는 규제 개선*,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와 혁신을 위한 정부의 조력자 역할** 제시
 - * (세부추진과제) 신약, 신의료기기의 신속 심사제도, 첨단재생의료의 병원내 신속적용,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 등
 - ** (세부추진과제)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제도의 의료기기 확대를 통한 민간 R&D 투자 활성화, 정책펀드를 활용한 민간 투자리스크 분담 등
 -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산업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 정비 등 적극적인 인프라 조성

7) EU의 Welfare, Wealth and Work for Europe(wwwforEurope)프로젝트의 정책보고서 'Industrial Policy for a sustainable growth path'에서 인용한 Aiginger (2012), Rodrik, (2013) 등의 'New industrial policy'요소를 참고

- ◎ 기존 자원의 효율화와 개방형 협력을 통한 기술의 탁월성 및 실용화 추구
 - 투입요소의 확장보다 기존 혁신주체의 융합과 연계를 통한 기술혁신 유도
 -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통한 R&D 효율화 및 기존 인프라의 활성화 방안* 마련을 통한 산업적 활용도 제고
 - * (세부추진과제) 거버넌스 개편, 재정자립 달성 방안 등을 포함한 제 3차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 수립, 첨복단지내 센터 활용 등

③ 핵심 요소

- ◎ (개방과 세계화) 넓어진 경쟁의 범위에서 산업 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한 방안
 - (추진과제) 국가 연구기관의 기술성과 이전·활용 등 개방형 협력을 추진하고 정부간 협력*을 통한 산업진출 기회 마련, 공동연구 등을 추진
 - * 의료 면허 인정, 취업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공동 프로젝트 협약 등
- ◎ (교육된 노동력) 산업의 활력과 고용 증대를 위한 하이로드(high-road) 전략⁸⁾
 - (추진과제) 특성화 대학, 교육과정 신설 등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및 기존인력 재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을 통한 인적자원 고도화
 - 의사, 간호사 등 기존의 의료인력 뿐 아니라 정밀·재생의료 등 신분야 연구개발 인력, 정보보호, 데이터 분석 인력 및 생산, 경영 등 현장 전문가 육성을 제안
- ◎ (경쟁적 우위 마련을 위한 정책지원) ‘비용’(급여, 생산비용)의 경쟁적 우위가 아닌 ‘역량’(기술, 제도)의 경쟁적 우위를 위한 정책
 - (추진과제) 세계최고수준의 의료기술과 집적된 인재를 활용한 의료수출, 첨단 재생의료 분야 선점을 위한 제도적 지원
 - 선도적인 ICT 융합을 통한 첨단 의료기기 산업 고도화와 디지털헬스 서비스 활성화, 한류열풍과 탁월한 제조기술을 가진 화장품 산업 등에 대한 투자 확대
- ◎ (협업과 성과확산 유도) 정부와 민간의 협력환경 조성을 통한 성과 확산
 - (추진과제) 첨단의료복합단지와 병원중심의 클러스터를 활용한 산업 주체간 협업과 기초연구의 실용화와 기술이전 확대 추진
 - 창업기업에 대한 기술개발과 인프라 지원, 중견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글로벌 제약사와의 공동연구 추진 등
- ◎ (혁신에 대한 우대) 기업의 기존 경로 의존적 의사결정을 통한 ‘lock-in’상황⁹⁾을 방지하기 위한 혁신 우대
 - (추진과제) 글로벌 혁신 신약, 바이오 신약 등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에 대한 투자 유인 마련
 - 기존의 기술과 제품에 대한 투자보다 리스크를 가진 새로운 기술과 제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약가우대, 신속심사 등을 통한 기업의 혁신 유도
- ◎ (사회적 필요성 고려) 산업뿐 아니라 사회전체에 대한 장기적인 혜택을 고려한 과제 선정
 -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국가신약개발, 신변종 감염병 극복을 위한 백신 개발 등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글로벌 공조 추진

8) 비용(급여, 세금, 에너지가격 등)을 축소하는 로우로드(low-road) 전략과 달리 생산성 증대와 역량강화(교육, 혁신 등)를 통해 경상수지와 실업을 개선하는 전략

9) 기업은 과거에 성공했던 분야나 기술에 대해 지속적인 투자를 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지속가능한 산업정책은 이를 방지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요소를 포함해야 함(Aghion et al, 2011)

■ 2017년 추진되는 주요 정책

- ◎ 보건산업의 종합적·체계적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 의료기기 산업 육성법, 정밀의료특별법, 첨단재생의료법 제정 추진('16~'18)
- ◎ 보건의료 분야 신제품 개발을 위한 R&D 및 사업화·실용화 지원 확대
 - 감염병 극복을 위한 공공·첨단 백신 개발 지원 확대('17~)
 - 침복단지 및 연구중심병원을 중심으로 한 기술창업·사업화 전주기 지원('17~)
 - H+TLO를 통한 기술이전 지원 확대 및 R&D 사전 실용화 컨설팅 도입
 - 의료인 창업·사업화 촉진 프로그램 운영
- ◎ 정부차원의 인프라 구축 및 신사업 프로젝트 추진
 - 의료인력 공급체계 및 종사환경 개선
 - 공공기관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 플랫폼 구축·활용('17~'18)
 - 정밀의료 국가전략 프로젝트 추진('17~'21)
- ◎ 글로벌 시장 개척 및 진출 지원
 - 제약산업 수출지원센터를 통한 정보제공 및 현지 수입·유통법인 설립 지원
 - 의료기기 현지화 진출 인프라 강화 및 화장품 주요 수출국 체험관/유통채널 확대
 - 의료 해외진출 지원 펀드 활성화 등 의료패키지 진출 과제 추진

V

결론 및 시사점

■ 저성장 시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보건산업 정책

- 저성장의 다양한 원인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책으로 각국 정부는 신성장동력 발굴과 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단순히 GDP 확대의 목적을 넘어 지속가능한 성장과 동시에 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산업 육성이 필요한 때이며 보건산업은 이러한 시기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분야임
- 이에 금번 '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은 그 정책목표나 주요전략과 정책요소 측면에서 저성장 시대의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정부투자의 무조건적인 확대가 아닌 민간투자를 유도하여 전략적 투자를 통한 예산 효율화를 추구하고,
 -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산업계의 의견 청취를 통한 포괄적 규제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 유관부처간의 협력, 관련 산업과의 연계, 산업내 혁신주체들 간의 개방형 협력을 통한 핵심 전략 및 과제를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

■ 정책 추진에 대한 제언

- 근거기반 기대효과 예측 및 연속성 있는 정책추진을 통한 정책 실효성 제고
 - 정책 추진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와 부작용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예측하고 세부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
 - * 새로운 의료서비스(정밀·재생의료 등) 도입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제시하는 의견과 자료에 대해 검증하고 실질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과를 추정
 - 추진과정에서 단기적인 성과와 장기적인 목표달성에 대한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며 결정권자의 변경, 조직개편 등의 산업 외적 환경변화에 따라 변경, 중단되지 않는 연속성 확보가 중요
- 국민 건강 증진, 일자리 창출 등의 사회적 목표 달성을 위한 균형 있는 정책 실현
 - 저성장시대의 산업정책은 사회적 목표 달성 또한 경제적 목표 달성만큼 중요한 요소이며 이에 따라 세부추진 과정에서 미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
 - 즉,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되 보건산업의 특성상 국민건강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
 -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도입을 통해 변화될 보건산업의 일자리를 합리적인 가정을 통해 예측·분석하고,
 - 새로운 산업과 기술에 대한 재교육을 통해 기존 인력의 이탈을 막는 동시에 인적자원의 혁신을 통한 총요소생산성을 개선 노력을 지속해야 함

